

이어령 '우리문화박물지' 등 '8월의 읽을 만한 책' 선정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위원장 민병욱)는 2007년 '8월의 읽을 만한 책'으로 이어령씨의 '우리문화박물지(디자인하우스)' 등 분야별 도서 10종을 선정·발표했다.

문학 분야에서는 이시영씨의 시집 '우리의 죽은 자들을 위해'(창비)가, 역사 분야에서는 이장락씨의 '민족대표 34인 석호필'(바람출판사), 철학 분야에는 아미르 악셀(번역 김명주)의 '데카르트의 비밀노트'(한겨레출판)가 각각 선정됐다.

이 밖에 '8월의 읽을 만한 책'으로 꼽힌 것은 ▲정치 '혁명을 꿈꾼 시대'(장석준 저·살림 펴냄) ▲경제경영 '겔브레이스에게 듣는 경제의 진실'(겔브레이스 저·이해준 역·지식의날개 펴냄) ▲사회 '슬럼, 지구로 뒤덮였다'(마이클 데이비스 저·김경아 역·풀베개 펴냄) ▲과학 '우주와 인간 사이에 질문을 던지다'(김정욱 외 저·해나무 펴냄) ▲예술 '오디오 마니아 바이블'(황준 저·푸른새김 펴냄) ▲ 아동 '석수장이 아들'(권문희 그림·창비) 등이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해남 출신 김경운씨 새 시집 '신발의 행자'

해남 출신 김경운(50) 시인이 '아름다운 사람의 마을에서 살고 싶다' 이후 11년 만에 두 번째 시집을 출간했다.

'신발의 행자'(문학들)를 통해 시인은 "이 세상에 와서 한평생을/누군가의 바닥으로 살아온 신발들"(신발에 대한 경배)을 애정어린 눈빛으로 관조한다. 애정의 시선은 경배로 이어진다.

신발이 곧 부처이고, 부처는 다시 시(詩)가 된다. 행자(行者)를 자처한 시인은 "거북이 등처럼 딱딱한" 손등을 가진 아버지, "등이 호미처럼 굽"은 어머니를 떠올린다. 땅끝의 행자가 들려주는 시어들은 삶에 대한 겸손과 긍지를 담은 깨달음의 언어이기도 하다.

시인은 전교조 전남지부 정책실장, 해남포럼 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해남군 황산실교 국어교사로 민중시인김남주기념사업회 회장, 광주·전남민중문화작가회의 부회장 등을 맡고 있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JYP엔터테인먼트 연습생 광주 공개 오디션 열기 후끈

춤·노래 '끼' 한마당... 별을 꿈꾸다

지난 29일 광주 밀리오에 9층 조이텐스 아카데미. 가수 비와 GOD등을 키워낸 박진영이 대표로 있는 JYP엔터테인먼트가 실시한 'JYP 연습생 공개 1기 오디션' 현장은 청소년들의 열기로 후끈거렸다. 이번 광주 오디션에는 초등학교부터 20대 초반까지 300여명이 참여, 성황을 이뤘다.

요즘 청소년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직업이 바로 연예인. 최근에는 YG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을 맺고 일본 데뷔를 준비중인 공민지양, 그룹 '빅뱅'의 이승현군 등 지역 출신 연예인들도 속속 탄생,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다.

참가자들 중에는 가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완벽하게' 준비해온 이들도 있었지만, '추억'을 만들기 위해 참여한 아이들도 많았다. 즐거웠던 오디션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자.

▲대기실 풍경 접수를 마치고 번호표를 받아든 참가자들은 대기실에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연예인 지망생들 300여명 몰려...친구들 함께 추억 만들기도

이번 오디션은 인터넷 사이트인 '엠군(m-goon)'과 함께 진행하는 행사. 엠군 관계자는 참가자들을 인터뷰하고 노래, 상대 모사 등 참가자랑하는 모습을 일일이 카메라에 담았다. 아이들은 벌써 연예인이 된 듯 즐거운 표정들이었다.

어느 순간, 아이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다. 엠군의 카메라 앞에 선 한 여학생이 파워풀한 목소리로 랍수를 불렀던 것. 대단한 실력에 참가자들 모두가 깜짝 놀라는 모습들이었다.

대기실 밖 계단에서는 노래 소리가 들려오고, 화장실에서는 얇은 화장을 고치고 춤 연습을 하는 아이들의 모습도 눈에 띄었다.

이승빈(살레시오중 2년)군의 어머니 최경희(43)씨는 "처음엔 반대했는데 아이가 정말 하고 싶은 거라 설득해 지금은 뒷

바라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승빈군은 드라마 '한성별곡'과 '사랑과 전쟁' 등에 출연한 바 있다.

목포에서 올라온 고등학교 3학년 허수지양은 "예전에 SM 오디션에서는 1차에 붙었는데 오늘은 어떨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오디션장 풍경 긴장하는 빛이 역력한 참가자들이 오디션장으로 들어섰다. 심사위원은 모두 3명. 2대의 카메라가 참가자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다.

오디션장에 함께 들어오는 사람은 모두 10명. 의자에 앉아 있다 자기 차례가 오면 10~15초 만에 춤, 노래, 연기 등 준비해온 것들을 보여줘야 한다.

직접 CD를 준비해온 한 남학생은 CD에서 음악이 나오지 않자 순간 당황했다. 다행히 주최측이 준비한 음악으로 춤을 추긴

했지만 뭔가 아쉬운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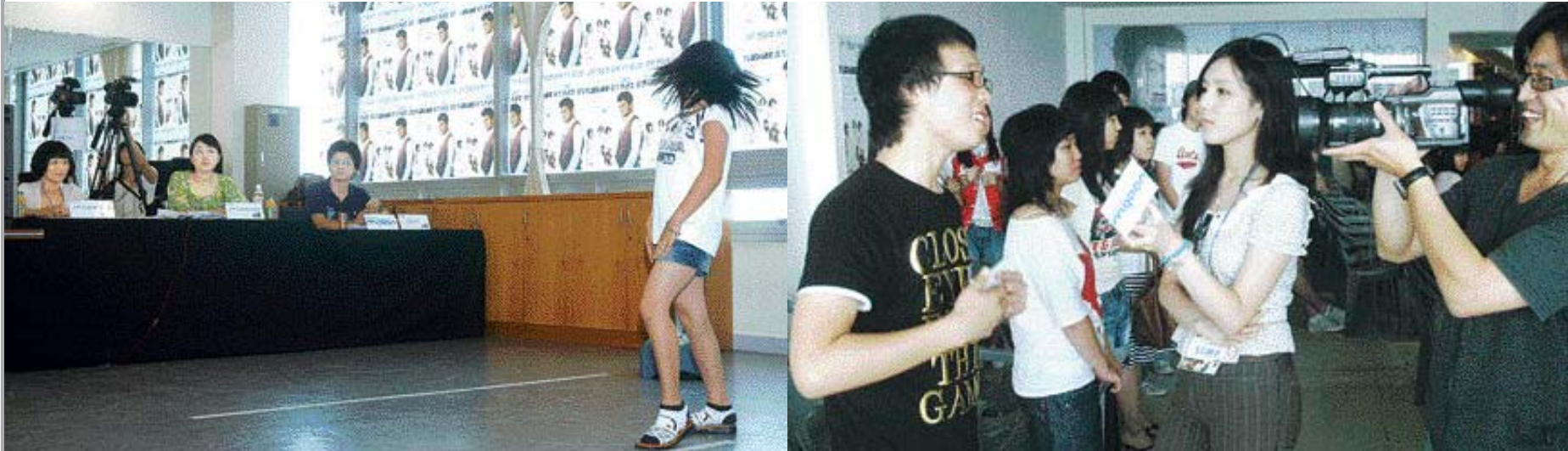
10대 후반의 한 여학생. 바로 앞의 지원자가 자신과 똑같은 노래를 부르자 친구에게 "어쩌면 좋나"는 표정을 지어보인다. 박자, 음정 하나도 맞지 않는 한 여학생의 노래엔 모두 웃음을 참느라 근혹스러운 표정들이었다.

다이내믹한 춤을 선보인 정다운(동림초 5년)양은 "너무 떨려서 실력을 30%밖에 발휘하지 못했다"며 "3학년 때부터 가수가 되고 싶었다"고 말했다.

학교 친구 심유현(수퍼여중 2년)양과 함께 참가한 정유리양은 "처음 참여했는데 참 재미있었다"며 "다른 사람보다 조금 길게 노래를 불렀고 결과가 궁금하다"고 말했다.

JYP엔터테인먼트의 김희원씨는 "5개 도시 공개 오디션을 통해 4명을 선발, 트레이닝을 시킬 계획"이라며 "끼 있는 아이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29일 광주에서 열린 JYP연습생 공개 오디션에 참가한 지원자들이 실력을 뽐내고 있다. 사진 오른쪽은 대기실에서 인터넷 방송국과 인터뷰하는 모습.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나를 드립니다'

나를 드립니다

김상연展 내달 3일부터 광주 롯데화랑

설치작가 김상연씨가 다음달 3~15일까지 광주 롯데화랑에서 개인전을 갖는다.

김씨는 이번 전시에서 '나를 드립니다'를 주제로 상대적으로 유동적인 개인간의 관계와 이를 바탕으로 형성되는 다양한 소통방식을 형상화했다.

그는 자화상, 원숭이, 악어, 거북이 등 4가지 테마의 연작 30여점을 선보인다. 익숙한 표정을 담고 있는 자화상은 자신의 삶을 관람객들과 나누고 싶은 작가의 마음을 담고 있다.

시선의 위치에 따라 달리 보이도록 설치된 '악어와 거북'은 입장과 관점의 차이 때문에 같은 사물도 저마다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평범한 상식을 일깨우고 있다.

테라코타로 제작한 원숭이 시리즈는 작은 원숭이들이 모여서 하나의 특정한 형태를 이루는 모양을 포착한 것으로, 어슬렁 살아가는 다양한 인간군상의 모습을 담고 있다.

김씨는 "유머러스하고 웃음이 절로 나오는 시각적 즐거움을 주는 작품들을 통해 관람객들에게 사물을 보는 색다른 시선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문의 062-221-1808.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제2기 입주작가 모집

서울시립미술관이 운영하고 있는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http://nanjistudio.seoul.go.kr)가 8월12일까지 제2기 입주작가를 모집한다.

2기 입주작가들의 입주기간은 오는 11월부터 내년 10월31일까지 1년간으로 모집 분야는 평면, 입체, 사진, 영상, 뉴미디어 등 현대미술의 모든 분야다.

입주자격은 만 40세 이하의 국내외 거주 한국국적 미술작가로 전용스튜디오를 사용하지 않고 있어야 한다. 문의 02-2124-8932, 8938.

/연합뉴스

광주 문학잡지 활기 띤다

'서정과 상상' 등 잇단 창간... '문학들' 2년 연속 우수문예지 선정



광주에서 발행되는 새 종합문예지가 창간되고 기존의 종합문예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선정하는 우수문예지로 2년 연속 선정되는 등 지역 문학계가 활기를 띠고 있다.

생명 중심의 생태주의 문학을 표방하는 문화종합지 계간 '서정과 상상'(발행인 정찬애)이 최근 창간호(2007년 가을호)를 냈다.

강경호 편집주간은 "산업자본주의의 악순환과 절망을 넘어서는 구체적 대안이 '서정'이라며 "자연을 정복대상으로 삼은 인간에게 초래한 생태위기에 대한 문화적 대응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장애인들의 시나 수필 등을 고정적으로 싣게 될 '함께 가는 문학' 코너가 돋보인다.

윤삼현·김희자·서연정·김경일씨가 편집위원으로 참여했다.

또 다른 종합문예지 '문학들'(발행인 송광룡)은 창간 2년이 채 되지도 전에 2년 연속 우수문예지로 선정되는 기쁨을 누렸다. 지난해 37종에서 올해 21종으로 선정 폭이 줄었는데도 얻어낸 결과라 더 의미가 깊다. 지

역에서는 광주의 '문학들'을 비롯해 대구와 부산의 시 전문문예지 '시와반사', '시와상상' 등 3종 뿐이다.

'문학들'은 지난 2007년 여름호(통권 8호)에서 인문학자 고병권·정선태·고미숙씨의 글로 특집을 구성하는 등 질적 차별화를 꾀했다. 김형중·이화경·임동화·채희운씨가 편집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 밖에 지난해 창간 10주년을 맞은 시 전문문예지 '시와사람'(편집주간 김선태)이 증권 문예잡지로서의 기쁨을 마련하고 있고, 매년 여름과 겨울 두 차례 출간되는 '삼피리'(편집주간 김경운)는 청소년을 위해 발행되는 문예지로 지역의 예비 문인들에게 장을 마련하고 있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movies and video services, featuring 'Happy Time' and '영화야니'.

Advertisement for Megabox (메가박스) cinema, listing movies like '화려한 휴가' and '트랜스포머'.

Advertisement for Enter Cinema (엔터시네마), listing movies like '화려한 휴가' and '해리포터'.

Advertisement for Columbus Cinema (콜롬버스시네마), listing movies like '트랜스포머' and '라피투이'.

Advertisement for Mudeung극장 (무등극장), listing movies like '마이' and '트랜스포머'.

Advertisement for Jeil Cinema (제일시네마), listing movies like '화려한 휴가' and '해리포터'.